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이 즐겁고 희망찬 날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상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 원 인 도 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가족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건강하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
에서 품은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
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
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송 301장 다 같 이

- 1절 :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2절 :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애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절 :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을 날도 멸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가 족 대 표

새로운 일을 이룩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 가족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
셔서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 속
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상들의 교훈과 정신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생활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
모를 공경하며 형제끼리 우애하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는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회가 혼란
하고 놀랄만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
당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도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
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전도서 4:9-12 자 녀 중 에서

앞면 본문 참조

설 교 말 씀 믿 음 의 세 겹 줄 말 은 이

오늘은 우리 민족이 대대로 지켜온 설 명절입니다. 이날 우리 민족은 지난 한해를 돌
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온 가족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왔습
니다. 오늘 우리 온 가족이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
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며, 또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올 한해,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는데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성한 오곡, 세상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은, 함께 사랑하며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하고, 서로 의지
하고 함께 기도할 가족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올 한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해
가 되기를 바랍니다.

2)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한 집에 산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가족이 함께 붙들어 일으켜 줍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이 누우면
추우려니와 가족이 함께 한 침상에 누우면 따뜻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있기에 외
롭지 않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제나 함께 하는 사랑이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에 영원하기를 바랍
니다.

**3)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믿음의 가족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
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의 가정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가
정,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보다 강합니다. 믿음으로 연합된
가족, 하나님 안에 하나 된 가족은 믿음의 세 겹줄이 되어 가정을 파괴하려는 세상의
그 어떤 공격도 능히 이겨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귀하게 세워지는 가문이 되기를 바
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있으니 우
리 가정의 축복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올 한해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후 기도 말 은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의 큰 명절 설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사죄하여 주시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은혜요 복임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나누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찬송 559장 다 같 이

- 1절 :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절 :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 기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후 교제 (새해 인사 및 덕담 나누기, 가족놀이)

설(구정)감사예배 지침

정월 초하루인 설은 '원단'(元旦), '세수'(歲首), '연수'(年首)라고도 부르며, 한자로는 '신일'(愼日)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간다."는 뜻이다. 묵은 1년은 지나가고 설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데, 1년의 운수는 그 첫날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던 탓이다. 설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미리 마련해 둔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 새 옷을 설빔이라고 한다. 아침에는 가족 및 친척들이 모여들어 조상의 은덕에 감사를 드리고, 어른들께 순서를 따져 세배를 드린 후에 떡국(歲饌)을 먹는다.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주며 덕담을 나누고, 가족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한다.

- 지침

- 1) 가족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둘러앉는다.
- 2) 가족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 3) 가족 가운데 어른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되, 서로 순서를 나누어서 참여하는 것도 좋다.

2017년 설 가정예배 순서

성경말씀 전도서 4:9-12

- [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 [10]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 [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 [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